

# 농업관측정보

## 축산관측

□ 한육우 : 12월~내년2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 13,000~14,500원(1등급) 전망

- ▶ 12월, 내년 3월 한육우 마리수 각각 298만 마리, 291만 마리로 감소 전망
- 가임암소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3.2% 증가한 304만 마리
  - 12월과 내년 3월 한육우 마리수는 전년보다 많으나 9월보다는 감소한 298만 마리, 291만 마리 전망

- ▶ 도축 마리수 증가로 12월~내년 2월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증가
-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12월~내년 2월 도축 마리수는 전년(17만 8천 마리)보다 10.3% 증가한 19만 7천 마리로 전망
  - 수입육 재고가 많아 12월~내년 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(6만 1천 톤)보다 적은 6만 톤 미만으로 전망

- ▶ 공급량 증가로 12월~내년 2월 한우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 전망
- 도축 마리수 증가로 12월~내년 1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~8% 하락한 13,500~14,500원(생체 484~519만원, 1등급 600kg기준) 전망
  - 비수기인 내년 2월 지육 도매가격은 13,000 원(466만원) 내외로 하락 전망

□ 돼지: 11~12월 지육가격은 3,900~4,100원/kg 전망 – 9월 이후 사육마리수 감소세 전환

▶ 12월 사육마리수는 987만 마리, 내년 3월에는 982만 마리 전망

- 고온 스트레스로 분만률이 저하되어 12월 사육마리수는 9월보다 0.4% 감소한 987만 마리(전년 동월보다 2.9% 증가), 내년 3월은 12월보다 0.5% 감소한 982만 마리(금년 3월보다 0.5% 증가) 전망

▶ 금년 11~내년 4월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 동기보다 2.6% 증가 전망

- 출하마리수 증가로 금년 11~내년 4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4.7% 증가 전망
-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동기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7.8% 감소 전망
- 수입량 감소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늘어 돼지고기 공급량은 2.6% 증가 전망
- 소비의향 조사 결과 내년 초까지 전년 대비 2% 내외의 돼지고기 수요 증가 지속 예상

▶ 연말까지 지육가격은 전년 수준 유지, 내년 1분기는 금년보다 상승 전망

- 연말까지 지육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kg 당 3,900~4,100원(박피 기준) 전망
- 국내산 가공육 소비 증가로 내년 1분기 가격은 구제역과 강추위로 소비가 부진하였던 금년보다 높을 전망

□ 육계: 12월 육계 산지가격 1,500~1,700원/kg 으로 보합세 전망

▶ 12월 육계 사육 마리수 전년보다 2.4% 증가한 7,977만 마리 전망

- 10월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.0% 증가한 718만 마리 추정
- 11월 병아리 생산은 전년보다 0.8% 증가한

4,807만 마리 전망

▶ 닭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4.8% 증가 전망

-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12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보다 2.5% 증가 전망
- 12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수준인 6,500톤 전망
- 11월 13일 기준 닭고기 비축물량은 전년 대비 약 42% 증가, 전월 대비 감소

▶ 12월 육계 산지가격 1,500~1,700원/kg으로 보합세 전망

- 부분육 소비 증가로 12월 닭고기 수요 소폭 증가 전망
- 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전년 수준인 1,500~1,700원/kg 전망

▶ 내년 1~2월 육계 산지가격 1,600~1,800원/kg으로 약상승세 전망

- 2012년 5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높은 수준 유지
- 2012년 1~2월 육계 산지 가격은 1,600~1,800원/kg으로 약상승세를 보이나, 전년보다는 낮을 전망

가을배추·무 저장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겨울철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전망.

- 당근 12~내년 1월 겨울당근 출하량은 작년 보다 17~20% 증가 전망, 12월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고, 1월 이후에는 약세 전망.
- 양배추 12~내년 1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35% 이상 증가 전망, 가격은 약세 전망.
- 겨울철 기온 변동이 크고, 한파 피해가 있을 경우 엽근채류 가격은 상승 전망.

▶ 〈재배의향면적〉 봄작형 배추·무·양배추는 감소, 당근은 증가

- 엽근채소 가을·겨울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봄철까지 출하량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
- 봄배추시설은 금년 대비 31% 감소하나 평년 대비 2% 증가, 노지는 금년과 평년보다 각각 15% 내외 감소
- 봄무시설은 금년보다 11% 감소, 노지는 금년보다 8% 감소하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
- 봄양배추는 금년보다 8% 감소, 봄당근은 8% 증가하나 의향은 지난달보다 다소 감소 추세

### 채소관측

□ 엽근채소 : 겨울철 엽근채소 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

▶ 〈가격전망〉 엽근채소 겨울철 가격 약세 전망 되나 한파가 변수

- 배추, 무 12~내년 1월 출하량은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40% 이상 증가 전망, 가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전망.

□ 양념채소 :

▶ 〈가격전망〉 풋고추를 제외한 12월 양념채소 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

- 건고추 : 민간수입증가와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건고추 12월 가격은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
- 마늘·양파 : 마늘은 민간수입 증가와 정부비축물량 방출로, 양파는 저장량이 많아 12월 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. 내년 1월

# 농업관측정보

부터 수확기(마늘 5월, 양파 4월) 이전의 가격도 보합세 전망

- 대파·쪽파 : 출하면적 증가와 겨울철 기상 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로 12월 가격은 전월 대비 약세 전망
- 뜯고추 : 뜯고추 12월 가격은 전월 하순 대비 강보합세 전망. 12월에 한파가 올 경우 억제재배 작형의 출하종료가 빨라져 가격은 평년 수준보다 높아질 전망

## ▶ <겨울철 출하 전망> 겨울철 양념채소 출하량 많을 듯

- 마늘·양파 : 내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증가 하나, 양파는 감소
- 대파·쪽파 : 내년 1~4월의 대파·쪽파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많을 전망. 12월~내년 1월에 한파가 발생할 경우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상승
- 뜯고추 :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출하량 많을 전망

## 과일관측

□ 11월 과일 크기 작지만 당도는 전반적으로 좋아

## ▶ 11월 사과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, 배·감귤은 낮을 전망

- 후지는 중·소과 비율 높아 상품과 중품간의 가격 차이 평년보다 클 듯
- 노지온주는 출하량 많지만 당도 좋아 가격은 작년보다 약간 낮을 듯
- 단감은 출하량 다소 많지만 품질 좋아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듯

## ▶ 올해 후지 생산량은 22만 7천톤, 신고는 26만 4천톤 전망

- 사과 저장량은 갈반병 심해 작년보다 18% 적고, 배는 5% 많을 듯
- 노지온주 생산량은 2009년보다 15% 적고, 작년보다 17% 많은 56만톤 예상
- 단감 생산량은 작년보다 7% 많은 19만 4천 톤 전망

## ▶ 내년 시선포도와 복숭아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각각 2%, 3% 늘어날 전망

- 내년 포도 가온시설 재배면적은 올해와 비슷, 무가온은 2% 증가
- 내년 복숭아 유목면적은 올해보다 4%, 성목면적은 2% 증가

## 과채관측

□ 과채류 출하면적 늘어 출하량 증가할 전망

## ▶ 11월 기상여건 양호하여 과채류 생육상태 좋을 듯

- 애호박은 영남지역 규모 확대로 출하량 작년보다 5% 증가할 전망
- 수박은 8월 침수피해 후 정식면적 증가로 출하량 작년보다 3% 증가할 듯
- 일반토마토는 출하량 많고 초순 시세에서 보합세 보일 듯
- 딸기는 주산지 작황상태 좋아 중순 이후 가격 하락할 전망
- 백다다기오이는 상순 시세에서 강보합세로 전환될 듯

## ▶ 11월 채소과채 정식 감소하고 과일과채 정식 대부분 증가

- 애호박은 경남 진주의 조기 정식 영향으로

### 정식면적 3% 감소

- 백다다기오이는 충남지역 일부 작목전환으로 정식면적 작년보다 3% 감소
- 일반토마토는 영·호남지역 정식의향 증가로 작년보다 3% 증가
- 수박 정식면적은 영남지역 재배의향 감소로 2% 줄어들 듯
- 참외는 경북 주산지에서 11월 정식의향 증가로 작년보다 9% 증가

### 곡물관측

□ 2011년 11~12월 산지 쌀 가격 15만 원 내외 전망

▶ 10월 5일 산지 벼 가격 9월 초 대비 16.1% 하락한 5만 1,615원/40kg

- 산지 쌀 가격 조사 대상이 신곡으로 전환되면서 10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16만 6,284 원/80kg으로 9월말 구곡 가격대비 9.5% 상승하였으나, 산지 벼 가격은 5만 1,615원/40 kg으로 9월초 대비 16.1% 하락
- 추석 수요와 조생종 등숙이 늦어지면서 9월

초 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,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어나 벼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

▶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벼 예상매입량 전년 대비 11.7% 증가

- 산지유통업체의 2011년산 수확기 벼 예상 매입물량은 전년보다 11.7% 증가
-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산 예상 도정수율을 조사한 결과, 전년대비 1.7%p 증가한 71.5%

▶ 2011년산 쌀 생산량 427만 9천 톤~440만 7천 톤 전망

- 2011년 9월 말까지의 기상데이터를 적용하여 금년 쌀 단수를 추정한 결과, 10a당 501kg ~516kg/10a으로 금년 쌀 생산량은 427만9천 톤~440만7천 톤으로 전망됨. 이는 11월 중순에 발표될 실제 쌀 생산량과 다를 수 있음
- 산지 쌀 가격은 10월에 하락세를 보이고, 중만생종 쌀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11~12월에는 14만8천 원~15만1천 원/80kg으로 약세 전망 ◎

###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원님들에게 알립니다.

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정부는 2012년부터 새로운 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시행되므로 인해 회원님들의 새로이 바뀐 주소가 필요하오니 전화나 우편으로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알려주십시오.

연락처 :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1-87 (02-794-7270)

예시) 현주소 :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1-87

새주소 :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3-13